



하루에 하나



2026.6.9

JUNE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원/달러 환율

1,527.95원 (-11.15원)

KOSPI

7,484.41 (-676.18, -8.29%)

KOSDAQ

911.39(-91.05, -9.08%)

국고채 10년 금리

4.348(+0.094%p)

동 자료는 오늘 발간된 자료의 요약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각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hanafn.com



Special Report

화장품

K-뷰티 다이내믹스: 지역/채널/카테고리편 [박종대]

Global Asset Strategy

글로벌 ETF Weekly

ETF 트렌드 & 포트폴리오: 변동성 대응 종목의 활용 [박승진]

주간 하나채권

[6월 2주] 성장이 받쳐주는 인상, 그렇지 못한 인상 [박준우, 허성우]

기업분석

RFHC

시가총액으로 보면 아직도 갈 길이 멍니다 [김홍식]

RF머트리얼즈

내년에도 훌륭한 실적 모멘텀이 대기 중입니다 [김홍식]

NAVER

성장성을 되찾은 성장주, 위를 보자 [이준호]

산업분석

운송

5월 인천공항 수송실적: 꺾이지 않는 항공수요 [안도현]

방위산업

한국 방산: 길어진 소외, 좋아진 손익비 [채운샘]

Weekly

건설

비우호적 환경, 반등 시 주도주에 편승 [김승준]

단기투자유망종목

HD현대중공업, NAVER, BNK금융지주, 오리온, 심텍, 엘앤씨바이오

2026년 6월 9일 | 산업분석_Industry In-depth

Overweight

Top Picks 및 관심종목

*CP 2026년 6월 8일

에이피알(278470)

BUY | TP 510,000원 | CP 366,000원

한국콜마(161890)

BUY | TP 110,000원 | CP 77,400원

실리콘투(257720)

BUY | TP 52,000원 | CP 33,000원

아모레퍼시픽(090430)

BUY | TP 150,000원 | CP 105,000원

코스맥스(192820)

BUY | TP 240,000원 | CP 158,500원

화장품

K-뷰티 다이내믹스: 지역/채널/카테고리편

화장품 최대 수출국 2024년 중국, 2025년 미국, 2026년은 유럽

심상치 않은 숫자다. 2026년 1분기 대 미국 화장품 수출이 YoY 40% 증가했다. 3월 아마존 뷰티 톱 100에 K뷰티 제품 수가 28개로 12월 대비 11개나 늘었다. 유럽 화장품 수출은 YoY 53% 증가하면서 규모 면에서 미국을 넘었다. 영국/폴란드/네덜란드 주요 지역 수출액 모두 다달이 앞자리 숫자가 바뀌고 있다. 지금 추세라면, 2026년 수출 증가율은 애초 기대치 YoY 15%를 훨씬 넘어 YoY 20% 이상도 가능할 수 있다. 화장품 최대 수출국이 2024년 중국, 2025년 미국에서 2026년은 유럽으로 매년 바뀌는 그야말로 K뷰티의 다이내믹스다.

화장품 수출, 4~5년 내 프랑스를 넘어 1등 가능

한국 화장품 산업은 이때까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글로벌 확장 국면에 있다. 2025년 화장품 수출은 114억달러로 미국을 제치고 세계 2위 화장품 수출 대국으로 발돋움했다. 지금 속도면 4~5년 내에 1위 프랑스를 넘볼 수도 있겠다. 성장 여력과 가시성이 그만큼 크고 높다. 지역으로 보면, 미국과 유럽에 이어 중동과 중남미까지 수출 지역이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광범위한 지역에서 밀려드는 수출 주문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적지 않다. 어떤 제품은 한달에 300만개씩 만들어도 부족한 상황이다.

채널 측면에서, 2026년부터 얼타뷰티/코스트코, 타겟 등 글로벌 대형 오프라인 유통 업체 전개가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선진국 소비의 85% 이상이 오프라인 채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단계 큰 도약이다. 카테고리 측면에서, 기초에서 색조로, 바디와 헤어 케어, 향수까지 점점 수출 카테고리가 확장하고 있다. 이전에는 없던 늘 새로운 제형으로 뾰족하게 틈새를 파고들며 새로운 고객군을 창출하고 있다.

한국 수출 산업 내에서도 화장품의 입지는 괄목상대(刮目相對)할 만한 수준이다. 2026년 1분기 5대 유망 소비재 수출 품목 가운데 농수산식품을 앞지르며 1위 품목이 됐다. 한국 15대 수출 품목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2025년 성장을 측면에서는 선박과 반도체에 이어서 3위에 랭크했고, 규모 면에서는 13위까지 올라왔다. 지금 속도면 2~3년 안에 톱 10에 진입할 수도 있겠다.

2025년 이후 K뷰티 글로벌 대항해시대 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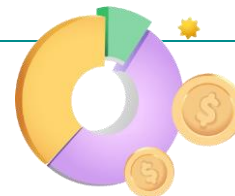
<K뷰티, 다이내믹스> 시리즈를 통해 2025년부터 2026년 현재까지 어떻게 한국 화장품 산업이 글로벌로 뻗어나가고 있는지를 그 현황과 전망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본다. 지역/채널/카테고리와 브랜드/ODM/용기/유통/무역밴더 등 화장품 밸류체인 상 업체들의 변화까지 한국 화장품 시장의 중장기 전망에 도움이 될 것이다.



Analyst 박중대 forsword@hanafn.com

글로벌 ETF Weekly

HANA Global Weekly | 2026.6.8



Global ETF 박승진 sj81.park@hanafn.com

RA 신민건 mingun.shin@hanafn.com

ETF 트렌드 & 포트폴리오: 변동성 대응 종목의 활용

변동성 이벤트들이 맞물리는 시점. 펀더멘털과 수급 변수의 영향권: **증강기 포지션과 함께 SPHQ, BTAL 등 변동성 대응 종목의 조합**

- 글로벌 수급:** 시장 변동성 확대 흐름 가운데 글로벌 ETF 시장의 확장 기조가 지속되었다. 글로벌 주식형 ETF 시장에서는 차별화 현상이 지속되면서 북미지역 주식형 ETF 시장과 글로벌 선진국 주식형 ETF 시장으로 각각 +326.9억달러, +180.4억달러의 자금이 유입된 반면, 선진 유럽과 아시아 주식형 ETF 시장에서는 -13.4억달러가 순유출되었다. 신흥국 주식형 ETF 시장의 경우 자금 유출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총 -97.6억달러가 순유출되었으며, 금리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자금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글로벌 채권형 ETF 시장에서는 선진국 채권형 ETF 시장에 +209.3억달러, 신흥국 채권형 ETF 시장으로 +50.2억달러가 유입되면서 총 +259.5억달러가 순유입되었다.
- 종목별 수급:** 미국 ETF 시장의 종목별 자금 흐름을 살펴보면, 여전히 시장 전반에 대한 선호도와 모멘텀 집중 현상이 공존하는 가운데 대표 주식형 ETF들과 주요 테마/스타일 ETF들로 자금이 유입되었다. S&P500지수를 추종하는 SPY/VOO/SPYM, 미국 증시 전반에 투자하는 VTI, NASDAQ100 지수를 추종하는 QQQM 등의 대표 미국 주가지수 추종 ETF들에 약 +150억달러의 자금이 순유입되었으며, 메모리반도체 테마 ETF인 DRAM과 미국 제외 글로벌 증시 ETF인 VXUS, 배당주 ETF인 SCHD 등의 종목들도 자금 유입 상위 리스트에 자리하였다.
- 글로벌 채권형 ETF 종목군의 경우 GGOV(USD 헷지 글로벌 국채), IUSB(투자등급채권), SGOV(초단기국채), VCSH(단기회사채), GOVT(미국국채)를 중심으로 투자자금이 유입된 반면, IAGC(글로벌 채권)과 TLT(장기국채), IEF(중기국채), BINC(채권액티브) 등에서는 자금 유출 흐름이 나타났다. 원자재 ETF 종목군의 경우 종전 기대와 인플레이션 경계가 동시에 반영되며 SCO(원유선물 레버리지), GLD/IAU(금현물), SLV(은 현물) 등을 중심으로 투자자금이 빠져나갔으며, 대표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들인 IBIT/ETHA/GBTC 등에서도 자금 유출 현상이 동반되었다.
- ETF 포트폴리오:** 주요 이슈들이 집중되면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기이다. 경제 이벤트 관점에서는 주중에 미국의 5월 CPI(6/10)와 PPI(6/11)를 비롯한 물가지표들이 발표될 예정이며, 다음주에는 케빈 워시 의장의 첫번째 FOMC(6/16~17)가 진행된다. 분기말 FOMC인 만큼 점도표와 경제전망 역시 확인될 것이다. 수급 관점에서도 대형 이벤트들이 대기하고 있다. 주 후반에는 과거 사례가 없었던 규모의 대형 IPO(SpaceX, 6/12)가 예정되어 있으며, 일주일 간격으로 도래하는 한국의 선물·옵션 만기일(6/11)과 미국의 선물·옵션 만기일(6/18) 역시 분기말 자금 이동과 맞물려 시장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는 일정들이다.
- 먼저 확인하게 될 5월 CPI의 경우, Headline 수치가 4월의 3.8%에서 4%대(YoY +4.2%)로 올라 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월대비 상승률 컨센서스는 +0.5%(3월: +0.9%, 4월: +0.6%)로 집계되어 있으나, 에너지 가격 상승과 기저효과 가운데 확인되는 4%대의 물가상승률은 FOMC를 앞두고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는 수치이다. 가격이 전가되는 시기는 늦춰질 수 있지만 Headline과 Core 상승률이 각각 6%대, 5%대까지 올라선 PPI(6/11) 역시 통화정책 경로에 대한 불안감을 풀어내기는 어려운 영역의 지표이며, 재고 급감 가운데 하방경직성을 보이고 있는 유가는 유동성과 수급 환경에 대한 부담이 커져있는 현 상황에서 또 하나의 경계 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 한편 지난주 고용보고서는 실업률이 4.3%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최근 2개월치의 상향 조정과 함께 월간 고용자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당장은 고용시장의 양적 확장 재개 흐름에 대해 시장의 시선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다만 상대적 저임금 업종 중심의 고용자 증가 및 고임금 업종의 고용자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관점에서 살펴볼 경우, 향후 구매력

약화 및 양극화 현상 확대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 SpaceX 상장 건은 Nasdaq과 FTSE Russell의 Fast Entry 이슈가 더해진 가운데 시장 전반의 수급 변동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상장 시점의 평가에 따라 미국 증시 6~7위권에 바로 진입하는 시가총액 규모로 추정되고 있는 만큼, 패시브 자금들의 이탈과 유입 현상들이 반복될 수 있다. 최근 2년 사이 기업가치 평가금액이 8~9배 가량 증가했다는 점도 기존 투자자들의 차익실현 의지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분간 주가 변동성 확대 흐름은 불가피해 보인다.
- ETF 포트폴리오 전략의 관점에서는, 수급 이동과 차익실현 매물 출회에 의한 변동성이 불가피한 시기이지만 펀더멘털을 기반으로 우선순위에 자리하고 있는 SMH/DRAM(반도체), ZAP/POWR(전력), URA/NLR(원전) 중심의 증장기 포지션에 대해 긍정적 시각을 유지할 필요가 있겠다. 액티브 운용 방식의 CHAT/BAI(AI 액티브)는 확장된 포트폴리오와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투자 고려 대상 종목군이 되겠다. SpaceX 상장과 함께 정부 정책 및 민간 확장 모멘텀을 갖춘 ARKX/NASA(우주항공) 등의 ETF들은 물량 확보 여부와 액티브 선호도의 기준을 반영하여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이다. 트럼프 정부의 리쇼어링 정책과 경쟁 구도 하에서 투자 모멘텀이 유효한 PAVE(인프라)와 AIRR(중소형제조업)에 대해서도 긍정적 시각을 유지한다. 단기 변동성 관리의 관점에서는 SPHQ(퀄리티)나 BTAL(高 β Long + 低 β Short) 역시 적절한 전략적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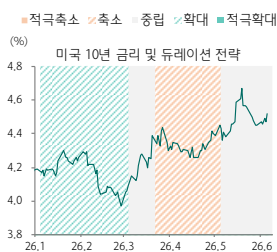
2026년 6월 8일 | Global Macro Strategy

Fixed Income

국채 투자 의견

	축소	중립	확대
미국	■	●	■
한국	■	■	■

주: ●는 직전(6/4) 전망



주간 하나채권

[6월 2주] 성장이 받쳐주는 인상, 그렇지 못한 인상

- 성장이 뒷받침되는 미국 국채는 '축소' 의견. 그렇지 못한 독일 국채 아웃퍼폼 전망
- 美 5월 고용 호조로 금리 상승 압력. 단, 중시 부담 감안 시 10년 4.50~4.75% 예상
- ECB, 금주 인상 예상. 1분기 역성장, 심리 부진, 통화긴축으로 장기금리 상승 여력 제한

Weekly Viewpoint

지난주 미국 채권과 주식이 동반 약세를 나타냈다. 4일 브로드컴 주가 하락 → 5일 한국(반도체) 주가 하락 → 5일 미국 고용 서프라이즈 → 美 달러/금리 급등 → 미국 기술주 하락으로 전개됐다. 이전과 달리 4, 5일 양일간 유가가 약 5% 하락하는 가운데 금리 상승과 주가 하락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유가가 아닌 '성장' 변수가 금리 방향성을 결정하고, 금리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력도 커지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6월] 글로벌 금리의 차별화가 시작됐다(6/4)'에서 국가별 '성장'에 따라 금리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한국/미국은 상승, 독일/호주는 하락 압력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에 주목한 바 있다 [도표 1, 2]. 지난주 금요일에는 미국과 유로존의 펀더멘털 격차가 추가로 확인됐다. 미국은 성장세 개선이 뒷받침되면서 인상 리스크가 확대된 반면, 유로존은 1분기 역성장에도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장이 받쳐주는 미국 국채에 대해 '축소' 의견을 제시하고, 그렇지 못한 독일 국채가 아웃퍼폼할 것으로 전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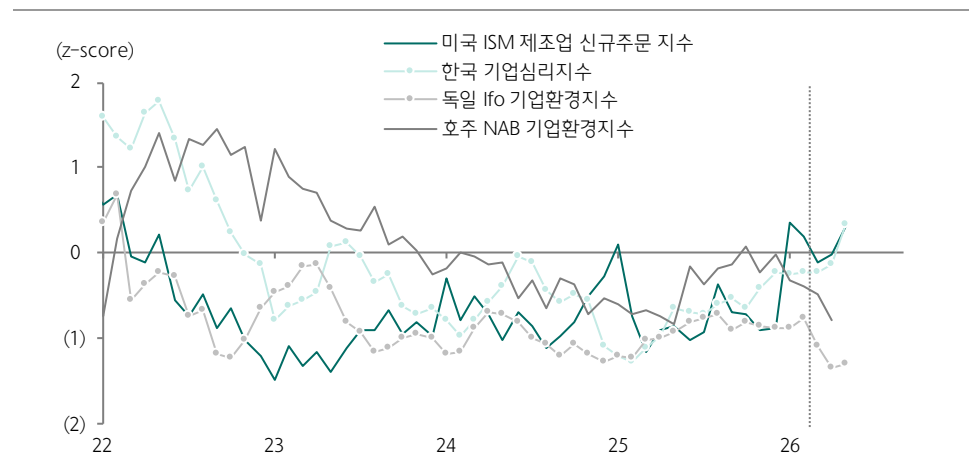
미국 금리는 고용 호조를 계기로 상방 리스크가 높아졌다. 5월 고용은 17.2만명 (3개월 평균 +18.8만명)을 기록했다 [도표 4]. 균형 수준(약 5만명)을 대폭 웃도는 규모다. 고용을 반등, 민간 기관의 고용지표 호조까지 고려하면 고용이 회복 추세에 진입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주 발표된 5월 베이지북에서는 GDP 위축 신호가 있다고 보고한 지역이 사실상 없었다 [도표 6]. 이렇게 고용(성장)이 예상보다 견조한 환경에서 긴축 리스크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금주 5월 CPI에서 근원물가 상승 압력까지 확인된다면, 시장의 인상 베타는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미 연내 인상 가능성이 반영되기 시작했고, 유가가 안정될 가능성, 그리고 10년 금리가 4.5%를 넘어설 때마다 주가가 주춤한 점을 고려할 때 10년 금리는 지금보다 소폭 높은 4.50%~4.75% 수준에서 등락이 예상된다.

ECB는 금주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 가격 추이가 이란 사태 이후 ECB가 제시한 시나리오 중 비관(adverse) 시나리오에 가깝고, 유로지역 인플레이션율도 2월 1.9%에서 5월 3.2%로 급등했다. 게다가 소비자의 1년후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3월에 4.0%까지 급등하는 등 유럽 외 국가 대비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도표 10]. 2022년 인플레이션의 트라우마가 큰 ECB는 6월 인상 신호를 내보낼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성장이다. 지난주에 발표된 유로지역의 1분기 성장을 확정치가 -0.2% QoQ로 잠정치 +0.1%에서 하향됐다 [도표 11]. 유가 충격 이후 심리지수가 꺾인 점도 고려하면 미국/한국과 전혀 다른 성장 추세가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통화정책 긴축까지 가해질 경우 둔화 리스크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긴축 리스크로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성장이 받쳐주지 못하므로 기간과 폭은 미국/한국 대비 짧고 작을 것이다. 더 나아가 2027년에 인상을 되돌리는 정책(인하)으로 선회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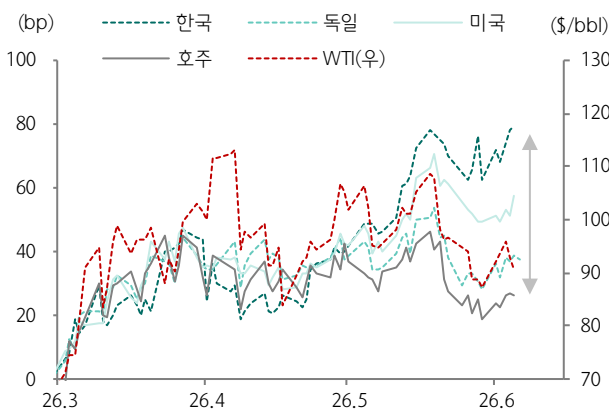
정리하면 한국은 일찌감치 성장 전망이 개선됐고 통화긴축 기조가 더해지면서 수익률 곡선이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주요국 중 이란 사태 이후 10년 금리 상승 폭이 약 80bp로 가장 크다 (영국보다도) [도표 2]. 미국은 고용 호조가 소비 위축 리스크를 일부 줄여주면서 유가 충격의 성장률 리스크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연내에 인상이 단행되지 않더라도 성장 전망이 개선되면서 중장기 금리의 상승 리스크가 커졌다. 반면 ECB는 성장이 꺾이는 가운데 긴축 리스크가 더해지는 상황이다. 이 차이는 **'2년 후' 단기금리 기대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도표3]**. 한국과 미국의 2년 후 단기금리(≒기준금리) 기대는 높아지는 추세다. 반면 유로존의 경우 연내 인상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졌으나, 성장이 뒷받침되지 못해 2년 후 예상 레벨은 저항선이 뚜렷하다. 장기금리는 단순히 올해의 기준금리 변화가 아니라 향후 10년의 기준금리 경로를 반영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미국보다 유로존 금리를 추천한다.

도표 1. 미국과 한국의 기업 심리는 개선. 반면 독일과 호주는 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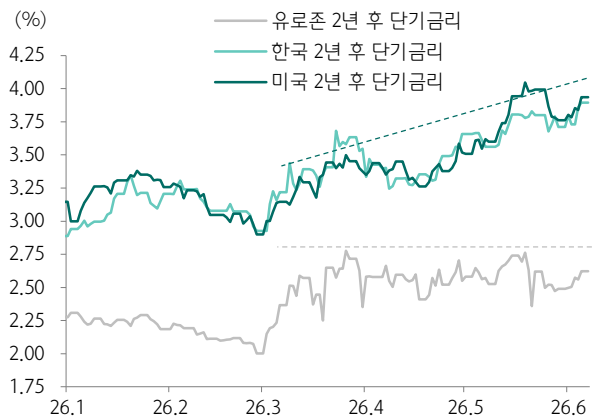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FRB of NY, 한국은행, 하나증권

도표 2. 주요국 10년 금리와 유가. 국가별 금리 차별화 본격화



주: 2026년 2월 28일 = 0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3. 한국/미국과 유로존의 2년 후 단기금리 기대 추이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2026년 06월 09일 | 기업분석_기업분석(Report)

BUY (유지)

목표주가(12M) 150,000원
현재주가(6.08) 75,7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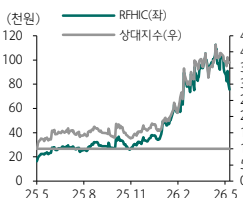
Key Data

KOSDAQ 지수 (pt)	911.39
52주 최고/최저(원)	112,500/22,050
시가총액(십억원)	2,010.1
시가총액비중(%)	0.39
발행주식수(천주)	26,553.4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650.7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59.6
외국인지분율(%)	24.45
주요주주 지분율(%)	
조석수 외 20 인	33.51
삼성자산운용	5.87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261.6	348.3
영업이익(십억원)	54.2	81.1
순이익(십억원)	51.9	70.4
EPS(원)	1,679	2,366
BPS(원)	14,531	16,409

Stock Price



Financial Data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114.9	185.8	265.5	318.0
영업이익	1.5	30.9	54.1	75.3
세전이익	25.0	37.8	59.3	78.0
순이익	25.7	28.7	37.9	57.4
EPS	969	1,082	1,428	2,162
증감율	48.62	11.66	31.98	51.40
PER	13.52	30.18	57.98	38.30
PBR	1.05	2.40	5.53	4.94
EV/EBITDA	24.94	21.13	34.30	25.22
ROE	8.60	8.84	10.35	13.78
BPS	12,453	13,625	14,979	16,759
DPS	100	400	400	400



Analyst 김홍식 pro11@hanafn.com
RA 이상훈 sanghunlee0121@hanafn.com

RFHIC (218410)

시가총액으로 보면 아직도 갈 길이 멍니다

매수 투자 의견/12개월 목표가 15만원 유지, 여전히 하락할 때가 매수 기회

RFHIC에 대한 투자 의견 매수, 12개월 목표주가 15만원을 유지한다. 추천 사유는 1) 국내외 통신장비 업체와의 상대 비교를 통해서 보면 여전히 시가총액 증가 폭이 크게 나타날 수 있고, 2) 최근 방산/항공/광통신 부문에서의 수주 잔고 증가, 하반기 이후 무선 통신 부문 매출 증가 가능성을 감안하면 2분기~4분기 실적 전망 밝으며, 3) 삼성전자와 더불어 에릭슨 장비 공급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며, 4) 글로벌 경쟁 상황을 감안 시 M/S 상승 추세가 이어질 전망이고, 5) 5G SA 관련주로 수급이 이동하는 상황에서 대장주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최근 1개월간 주가 하락 폭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난 상황인데 장기 상승 추세가 이어질 전망이라 조정 때마다 비중확대에 나설 것을 권한다.

실적 흐름 양호/재료 넘치는 상황, 통신장비 대장주로 여전히 손색 없는 상황

2026년 1분기 시장 기대치에 부합한 실적을 기록했던 RFHIC는 2분기 이후에도 우수한 실적 흐름을 이어나갈 전망이다. 방산/항공에선 RTX, 자회사 광통신 부문에서는 루멘텀에서 예상보다 높은 수주 물량이 확보되고 있고 미국 주파수 경매 이후 삼성/에릭슨향 매출 발생이 본격화될 것이라 장기 실적뿐만 아니라 단기 실적 전망도 밝다. 방산/광통신 부문의 매출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2분기 연결 매출액은 570억원(+28% YoY, +32% QoQ), 연결 영업이익은 111억원(+34% YoY, +44% QoQ)을 기록해 시장 기대를 뛰어넘는 실적 달성이 예상된다. 상반기 실적 호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하반기 이후 통신 부문이 가세할 것이라 장기 실적 전망도 밝다. 미국 주파수 경매 대표 수혜주인데다가 업계 재편에 따른 M/S 상승도 기대되어 호재가 넘쳐나는 상황이다.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봐도 통신장비 대장주로 손색이 없어 보인다. 최근 주가 조정을 받은 상황이라 가격 부담도 크게 낮아졌다. 적극 매수로 RFHIC에 대응할 것을 추천한다.

국내외 사례 감안할 때 향후 RFHIC 주가 상승 폭 클 전망

아직까지도 RFHIC에 대한 밸류에이션 부담을 토로하는 투자자들이 적지 않다. 그런데 과거 LTE/5G 도입 당시 통신장비 Multiple, 최근 미국 광통신주 Multiple, 국내외 통신장비 업체 시가총액 수준을 고려하면 RFHIC의 현 주가는 극도로 저평가된 상황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향후 주가 상승 업사이드가 크다는 판단이다. 특히 RFHIC M/S가 급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업계 구조조정 양상을 감안 시 TR 쇼티지 발생 가능성이 높음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2027년 매출액이 3천억원, 연결 영업이익이 700억원 이상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현재 RFHIC의 시가총액이 2조원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 현재 미국 시장 기준으로 보면 7조원 이상으로 RFHIC 시가총액이 형성될 수 있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판단이다. 5G SA에서 6G 투자 기대감이 높아질 2026~2028년까지는 지속적인 주가 상승이 예상된다.

2026년 06월 09일 | 기업분석_기업분석(Report)

BUY (유지)

목표주가(12M) 150,000원
현재주가(6.08) 6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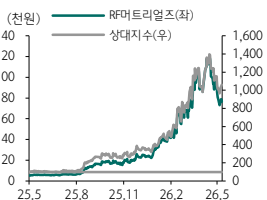
Key Data

KOSDAQ 지수 (pt)	911.39
52주 최고/최저(원)	118,700/5,602
시가총액(십억원)	577.7
시가총액비중(%)	0.12
발행주식수(천주)	8,995.1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401.1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33.2
외국인지분율(%)	17.38
주요주주 지분율(%)	
알에프에이차이이씨 외 9인	48.78
국민연금공단	7.02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98.2	142.7
영업이익(십억원)	16.1	28.8
순이익(십억원)	14.0	24.4
EPS(원)	1,570	2,557
BPS(원)	7,335	9,979

Stock Price



Financial Data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44.5	64.1	106.1	146.2
영업이익	(1.5)	7.4	18.7	27.9
세전이익	(7.5)	8.3	21.5	30.3
순이익	(4.8)	7.1	12.3	17.2
EPS	(568)	837	1,402	1,908
증감율	적지	폭전	67.50	36.09
PER	(8.28)	26.88	54.64	40.15
PBR	0.92	3.59	10.36	8.24
EV/EBITDA	19.96	18.30	29.66	19.69
ROE	(11.22)	15.05	20.55	22.86
BPS	5,102	6,260	7,393	9,301
DPS	0	0	0	0



Analyst 김홍식 pro11@hanafn.com
RA 이상훈 sanghunlee0121@hanafn.com

RF머트리얼즈 (327260)

내년에도 훌륭한 실적 모멘텀이 대기 중입니다

RF머트리얼즈 투자 의견 매수, 목표주가 150,000원 유지

RF머트리얼즈에 대한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한다. 추천 사유는 1) 설비 가동률과 시설 증축을 고려하면 2027년 루멘텀향 광모듈 매출은 2026년보다도 좋을 전망이며, 2) 고주파수 대역에서 GaN TR 필요성과 NXP 철수를 감안시 모회사 RFHIC의 M/S가 크게 확대되면서 RF머트리얼즈의 통신향 패키지 매출이 루멘텀향 매출 이상으로 커질 것이고, 3) 입증된 실적에 비해 주가 조정이 과도하여 향후 주가 반등이 예상되며, 5) 광 뿐만 아니라 무선주 수급에도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 변화만 감안하더라도 RF향 매출은 루멘텀향 매출을 크게 상회할 것입니다

최근 루멘텀향 광모듈 수주 덕분에 RF머트리얼즈 실적이 크게 향상됐다. 설비 가동률 및 시설 증축까지 감안하면 향후 루멘텀향 매출이 300억원 이상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RF시스템즈 제외한 매출 기준 2배 성장한 수치이다. 단기간에 급격한 외형 성장을 이룬만큼 RF머트리얼즈의 추가 성장 잠재력을 회의적으로 보는 투자자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향후 RF 매출이 광모듈 매출을 능가하며 실적 성장을 견인할 것이다. 향후 고주파수대역에서 GaN TR과 LDMOS TR의 사용 비율 변화, NXP 사업 철수로 인한 M/S 확대 및 5G RAN 구축 현황을 감안하면 그렇다. 2022년 당시 RU에서 GaN TR이 사용되던 비중은 40% 내외로 추정된다. 당시 사용되던 3GHz 대역까지는 LDMOS가 성능 대비 가격이 우수했던 탓이다. 그런데 향후 미국 OBBBA 경매 예상 대역인 4GHz와 7GHz에서는 GaN TR이 필수적이다. M/S가 LDMOS TR 업체에서 GaN TR 업체로 재편될텐데, 이런 상황에서 기존 LDMOS TR 강자이자 M/S 40%를 차지하던 NXP가 통신부문에서 철수했다. 더욱이 5G RAN 수가 전체 RAN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을 감안하면 RFHIC M/S가 2%에서 최대 10%까지 상승하며 자회사 RF머트리얼즈의 통신향 패키지 매출이 크게 증가하는 그림이다. 2022년 통신용 패키지 매출이 147억원이었는데, 상술한 시장효과 반영시 루멘텀향 실적을 제외한 RF향 실적으로만 500억원대 매출 증분이 가능하단 계산이다.

실적에 비해 과도한 주가 조정 국면, RF향 실적 가시화되면 주가는 더 오를 것

최근 국내 광통신주가 조정국면에 들어갔다. 그에 비해 해외 광통신주는 여전히 상승중이고, 루멘텀 또한 고점대비 90%에서 횡보 중이다. 아무래도 현 시점에서 광은 실적을 입증해야 하는데, 해외와 달리 국내에선 매출을 입증한 곳이 소수여서 그렇다. 이렇게 보면 현재 RF머트리얼즈 주가 하락은 과도하단 판단이다. RF머트리얼즈는 국내에선 유일하게 엔비디아향 매출이 발생중인데, 주가 하락율은 타 국내업체와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주파수 경매를 통해 RF향 실적이 증가하면 멀티플 부담감이 대폭 완화되며 RF머트리얼즈 투자 매력도가 향상될 것이다. 특히 최근 섹터내 수급이 광에서 무선으로 이동 중인만큼, RF머트리얼즈는 타 광통신주와 달리 끊임없이 수급에 노출되는 점도 장점이다.

2026년 6월 9일 | 기업분석_Update

BUY(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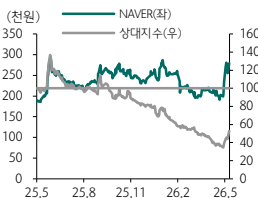
목표주가(12M) 400,000원(상향)
현재주가(6.08) 279,000원

Key Data

KOSPI 지수 (pt)	7,484.41
52주 최고/최저(원)	290,500/191,200
시가총액(십억원)	43,767.8
시가총액비중(%)	0.71
발행주식수(천주)	156,873.8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1,513.9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361.6
외국인지분율(%)	34.62
주요주주 지분율(%)	
국민연금공단	9.33
BlackRock Fund Advisors 외 13 인	6.11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13,685.7	15,109.0
영업이익(십억원)	2,414.6	2,758.8
순이익(십억원)	1,949.5	2,337.0
EPS(원)	12,505	14,870
BPS(원)	197,198	211,244

Stock Price**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10,737.7	12,035.0	13,826.4	16,079.1
영업이익	1,979.3	2,208.1	2,394.2	2,878.4
세전이익	2,322.2	2,420.1	2,465.7	3,370.3
순이익	1,923.2	1,953.2	1,900.1	2,609.5
EPS	11,913	12,376	12,113	16,635
증감율	92.77	3.89	(2.13)	37.33
PER	16.70	19.59	23.03	16.77
PBR	1.20	1.35	1.38	1.29
EV/EBITDA	11.27	11.85	12.10	10.07
ROE	7.90	7.36	6.48	8.11
BPS	166,221	180,117	202,389	216,515
DPS	1,130	2,630	2,630	2,630



Analyst 이준호 junholee95@hanafn.com

NAVER (035420)**성장성을 되찾은 성장주, 위를 보자****엔비디아와 AI 팩토리 사업 진출**

NAVER 6월 8일 A엔비디아와 글로벌 AI 팩토리 공동 구축 사업 추진을 공시했다. ‘아시아판 코어워브’를 표방, 데이터센터 확보 후 B2B 사업으로 무게를 중심을 변화하여 국내, 아시아, 중동, 유럽의 AI 데이터센터 수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궁극적으로 1GW 데이터센터 보유 및 서비스를 목표로하며 GW 수준까지 증설에는 5~6년을 예상한다. 데이터센터 구축은 크게 4가지 단계로 진행한다.

1단계: 2028년까지 국내, 말레이시아, 일본 등 데이터센터 리스로 200MW. 2027년 상반기 55MW, 2027년말 누적 100MW, 2028년말 누적 200MW로 점차 확보 예정

2단계: 2029년~2030년 각 세종 증설 작업으로 200MW~300MW 추가 확보(국내)

3단계: 2029년~2030년 200MW~300MW 추가 리스(국내/글로벌)

4단계: 2030년 이후 300MW 규모 신규 데이터센터 건설(국내/글로벌)

1단계에 해당하는 초기 200MW 데이터센터 리스를 위해서 NAVER와 전략적 파트너가 각각 10억달러(1.5조원)를 출자하여 SPV를 설립, 이후 편당으로 자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략적 파트너는 엔비디아 혹은 고객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초기 200MW에 대한 필요 투자 비용은 8조원 이상으로 추정, 장기수주계약 이후 자산을 포함한 담보로 조달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200MW에 대한 고객사는 가시권 안에 있다고 밝혔기에 무리가 없어 보이며 초기 서비스 이후 높은 가동률을 통한 실적 기여 기대한다.

AI 팩토리 가이드نس, 우선은 보수적으로 보자

이번 발표와 함께 NAVER는 AI 팩토리의 가이드نس로 5년 후 매출 20조원, 영업이익률 20% 이상을 제시했다.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코어워브가 MW당 연간 약 120억원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음을 감안했을 때 다소 높은 가이드نس다. GPU 비용 상승, MSP 포함 부가 서비스 창출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한다. 하나증권은 1단계 AI 팩토리 사업의 매출액을 2027년/2028년 7,154억원/1조 8,234억원으로, 영업이익을 1,073억원/2,735억원으로 추정한다. MW당 매출액은 코어워브의 최근 분기로 적용, 가동률은 90% 수준을 유지하며 점차 증설됨을 감안했다. GPU 렌탈 비용 상승, 부가 서비스는 보수적으로 반영하지 않았으며 영업이익률은 15%로 추정했다. 영업이익률 20% 적용 시 추정치는 영업이익 1,431억원/3,647억원이다. 향후 고객사 발표, 자금 조달 방식, 사업화 속도 가시화에 따라 변경 예정이다.

투자의견 Buy 유지, 목표주가 400,000원으로 상향

목표주가를 400,000으로 상향, 인터넷 산업 내 Top Pick을 유지하고 강력 매수를 추천한다. 목표주가는 AI 팩토리 초기 실적이 반영되는 2027년 예상 EPS에 Target Multiple 24배를 적용했다. AI 팩토리 고객사 공개, 수주 확인에 따라 추가 상향 예정이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NAVER의 주가 부진 요인이었던 성장성을 확보했다는 점이다. 엔비디아와 제휴를 통한 네오클라우드 사업 진출로 국내, 글로벌향 매출 기대가 가능해짐에 따라 기업의 체질이 완전히 변화할 전망이다. SPV의 자금 조달 구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대표적인 네오클

라우드(코어워브, 네비우스) 기업들은 투자 집행, 금융 비용으로 인한 손실 구조에도 불구하고 계약 전력 1GW 당 약 20조원에 가까운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 양 사 모두 엔비디아가 투자를 집행하여 GPU 공급을 보증했으며, 빅테크향 장기 계약이 확정되어 있어 가능하다. 물론 NAVER의 1GW가 계약 전력이 아닌 목표치이고 1단계는 200MW 규모이기에 해당 수준을 단기간에 모두 반영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수요에 근거한 투자로 예상되며 2027년부터 당장 실적에 기여하고, 이후 글로벌 진출이 예상되기에 기대감을 충분히 받을 것으로 판단한다. 하반기 NAVER는 AI 팩토리 외에 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합병도 하반기(9월 30일) 예정되어 있다. AI 팩토리, 디지털자산이라는 신사업은 광고/커머스의 안정적 실적에 더 붙어 확실한 리레이팅 요소로 작동 가능하다. 이후 고객사 공개, AI 팩토리 2단계 일정과 수주 잔고 확보, 디지털자산 신사업이 가시화되며 기업 가치는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

도표 1. NAVER 밸류에이션

(단위: 원, 배)

항목	가치	비고
1. 2027년 예상 EPS	16,635	2022-2024년 12MF P/E 평균
2. Target PER Multiple	24	
3. 적정주가(1*2)	399,232	
4. 목표주가	400,000	목표 시가총액 62.7조원
5. 현재주가	279,000	현재 시가총액 43.8조원
6. 상승여력	43.4%	

자료: 하나증권

도표 2. NAVER 실적 추이

(단위: 십억원, %)

	1Q25	2Q25	3Q25	4Q25	1Q26	2Q26F	3Q26F	4Q26F	2025	2026F	2027F
영업수익	2,786.8	2,915.1	3,138.1	3,195.1	3,241.1	3,383.2	3,525.3	3,676.8	12,035.0	13,826.4	16,079.1
YoY(%)	10.3	11.7	15.6	10.7	16.3	16.1	12.3	15.1	12.1	14.9	16.3
서치플랫폼	1,604.7	1,693.1	1,816.6	1,850.3	1,839.8	1,938.9	2,003.6	2,090.7	6,964.7	7,873.0	8,640.3
YoY(%)	13.9	12.4	17.9	10.1	14.7	14.5	10.3	13.0	13.5	13.0	9.7
광고	1,276.2	1,346.6	1,398.1	1,415.3	1,394.5	1,477.9	1,520.5	1,578.0	5,436.2	5,970.9	6,544.2
YoY(%)	9.8	8.3	10.9	7.1	9.3	9.8	8.8	11.5	9.0	9.8	9.6
서비스	328.5	346.6	418.6	434.9	445.3	461.1	483.1	512.6	1,528.5	1,902.1	2,096.0
YoY(%)	33.7	31.7	49.0	21.3	35.6	33.0	15.4	17.9	33.1	24.4	10.2
파이낸셜 플랫폼	386.7	405.6	427.3	448.6	459.7	474.5	493.3	521.4	1,668.2	1,948.9	2,269.9
YoY(%)	10.8	11.7	12.4	13.5	18.9	17.0	15.4	16.2	12.2	16.8	16.5
글로벌 도전	795.4	816.4	894.1	896.2	941.6	969.8	1,028.3	1,064.8	3,402.1	4,004.5	5,168.9
YoY(%)	3.5	10.3	12.6	10.7	18.4	18.8	15.0	18.8	9.3	17.7	29.1
C2C	222.7	227.5	250.6	285.7	351.1	344.9	352.6	402.1	986.5	1,450.6	1,695.7
콘텐츠	446.2	462.1	498.2	444.9	440.1	477.9	508.6	472.5	1,851.3	1,899.1	2,003.9
엔터프라이즈	126.6	126.7	145.3	165.6	150.5	147.0	167.1	190.2	564.2	654.8	1,469.3
영업비용	2,281.5	2,393.5	2,567.4	2,584.4	2,699.3	2,832.0	2,894.3	3,006.7	9,826.9	11,432.2	13,200.6
YoY(%)	9.3	12.0	17.2	10.3	18.3	18.3	12.7	16.3	12.2	16.3	15.5
개발/운영비용	671.1	683.1	732.7	743.7	748.9	762.2	753.7	777.7	2,830.7	3,042.5	3,208.4
파트너	990.9	1,030.2	1,114.1	1,129.8	1,188.0	1,252.5	1,305.1	1,374.8	4,265.0	5,120.3	5,744.5
인프라	189.3	197.7	218.6	205.2	250.8	261.8	272.8	283.1	810.9	1,068.4	1,218.5
마케팅	430.2	482.4	502.0	505.7	511.7	555.5	562.8	571.1	1,920.3	2,201.1	2,421.2
영업이익	505.3	521.6	570.6	610.6	541.8	551.3	631.0	670.1	2,208.1	2,394.2	2,878.4
YoY(%)	15.0	10.3	8.6	12.7	7.2	5.7	10.6	9.7	11.6	8.4	20.2
영업이익률(%)	18.1	17.9	18.2	19.1	16.7	16.3	17.9	18.2	18.3	17.3	17.9
당기순이익	423.7	497.4	734.7	163.0	291.0	424.9	606.5	584.9	1,818.7	1,907.3	2,628.8
YoY(%)	(23.8)	0.5	38.6	(68.3)	(31.3)	(0.1)	(17.5)	258.8	(5.9)	4.9	37.8
당기순이익률(%)	15.2	17.1	23.4	5.1	9.0	12.6	17.2	15.9	15.1	13.8	16.3
지배주주지분 순이익	424.8	488.8	726.4	313.2	285.3	420.1	608.2	586.5	1,953.2	1,900.1	2,609.5
비지배주주지분 순이익	(1.2)	8.6	8.3	(150.2)	5.7	4.8	(1.7)	(1.6)	(134.5)	7.2	19.3

주: 1Q26부터 매출 분류 변경, AI 팩토리 비용은 우선 인프라 비용으로 배분, 추후 변경 예정
 자료: 하나증권

2026년 6월 9일 | 산업분석

Overweight

Top Picks 및 관심종목

*CP 2026년 6월 8일

대한항공(003490)

BUY | TP 32,000원 | CP 23,800원

진에어(272450)

BUY | TP 7,000원 | CP 5,310원

운송

5월 인천공항 수송실적: 꺾이지 않는 항공수요

5월 인천공항 여객수송실적 627만명(+6% (YoY))

2026년 5월 인천공항 여객수송실적은 전년 동월 대비 6% 증가한 627만명을 기록했다. 동남아를 제외한 전 지역이 높은 트래픽 성장세를 보였다. 일본/중국/동남아 노선 여객 수송량은 +14%/+16%/-10% (YoY) 변동했고, 미주/유럽 노선은 14%/13% 증가했다.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이 7%/7% (YoY) 증가했고, 제주항공/진에어/티웨이항공은 +14%/-6%/-23% 변동했다. 5월 환승객은 35% (YoY) 증가한 70만명(환승 여객 비중 11.2%)을 기록하며 인천공항이 유럽/미국의 환승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5월 인천공항 화물수송실적 26.0만톤(4% (YoY))

5월 인천공항 화물수송실적은 4% (YoY) 증가한 26.0만톤을 기록했다. 주요 루트인 중국/동남아/미주/유럽 지역 수송량이 +5%/-0%/+8%/+8% (YoY) 변동했다. 중동 전쟁 이후 환적 화물 증가로 인천공항의 화물 수송량이 증가 전환했다.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이 2% (YoY) 증가했고, 아시아나항공은 72% 감소했다.

엄습하는 환율, 화물/환승으로 극복

현재의 원화 절하 상황을 고려했을 때, 국내 아웃바운드 수요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미주/유럽 항공권은 전쟁 발발 이후 운임이 30% 이상 상승한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항공권 가격도 부담인 상황이다. 실제로 4월 미국 향 출국자 수는 10% (YoY) 감소했다. 다만 중동 전쟁 이후 유럽 노선 환승 수요를 인천공항이 흡수하고 있고, 미-중 간 직항 항공편 축소(코로나19 이전 대비 30% 미만 추정)를 감안하면 국내 FSC의 수요는 상대적으로 견조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인바운드 여객량은 여전히 성장률이 높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화물 운임 상승세도 가파르다. 전쟁 이후 항공화물 전반 운임이 30% 이상 상승한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2분기만 잘 넘기면 대한항공에게는 오히려 기획의 장이 될 수 있다. 2분기 또한 화물과 환승수요가 하단을 지지하면서 대한항공 실적 추정치를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에 대해서 현재 주가를 저점으로 매수 접근을 추천한다.



Analyst 안도현 dohyunahn@hanafn.com

2026년 6월 9일 | 산업분석_Update

Overweight

방위산업

한국 방산: 길어진 소외, 좋아진 손익비

연간으로 보면 한국 방산 합산 시가총액은 우상향 기조 지속 중

2022년 러-우 전쟁 이후 한국 방산업체들의 합산 시가총액은 우상향 기조를 이어왔다. 2022년과 2024년 코스피가 연간 기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음에도 한국 방산 합산 시가총액은 상승했다. 실적 개선뿐만 아니라 글로벌 자주국방 강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른 밸류에이션 할증이 주가 상승을 뒷받침했다. 실적 성장과 자주국방 강화라는 구조적 흐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한다. 특히 국제정세를 규정하는 미국의 대외정책 고려 시 자주국방 강화 흐름은 최소 2020년대 후반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 방산업체들의 합산 실적은 100조원에 육박하는 방산 수주잔고 기반으로 2027년, 2028년에도 성장 가시성이 높다. 이에 따라 한국 방산업종의 중장기 주가 우상향 흐름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최근 2개월 간 코스피 지수 대비 한국 방산 주가 소외 현상

최근 2개월간 코스피 대비 한국 방산 5사의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황이다. 2022년 러-우 전쟁 이후 한국 방산 합산 시가총액이 최장기간 코스피를 하회했던 구간은 2025년 10월~12월이다. 당시 약 2개월간 한국 방산 합산 시가총액 수익률은 코스피를 17.6%p 하회했다. 소외 배경은 미국 주도의 러-우 전쟁 종전 협상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방산업종의 중장기 수요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부각됐기 때문이다. 이후 종전 협상 난항과 밸류에이션 저평가 매력에 부각되면서 한국 방산업종은 반등에 성공했다. 현재 한국 방산 주가의 소외 국면도 과거 최장 소외 구간이었던 2025년 10월~12월과 유사하게 약 2개월간 지속되고 있다. 다만 코스피 대비 하회폭은 32.2%p로 당시보다 더 크다. 2025년 12월 초 반등 당시 기업별 12개월 선행 PER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6.7배(현재 21.1배), 현대로템 17.1배(17.6배),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20.1배(35.2배), 한국항공우주 28.4배(28.4배), 한화시스템 29.4배(49.6배)였다. 2027년 기준 PER은 각각 19.5배, 18.2배, 28.6배, 20.7배, 51.0배이다. 중장기 관점에서 기대수익 대비 하방위험이 낮아지며 진입 손익비 개선되고 있다고 판단한다.

하반기를 대비해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기 좋은 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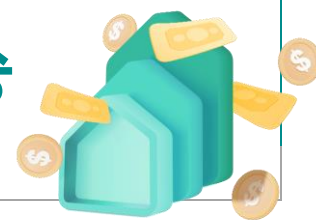
주가 소외에도 불구하고 한국 방산업종의 실적 모멘텀은 하반기에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상반기 한국 방산 5사의 합산 영업이익 성장률이 18.8%로 추정되는 반면 하반기 합산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60.9%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업종 주가 반등 시 시장의 관심은 1) 하반기 증익 모멘텀이 높은 기업군, 2)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이 캐나다 잠수함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잠수함 탑재 체계 및 후속 군수지원 수혜가 기대되는 기업군으로 확대될 수 있다. 기업별 하반기 영업이익 성장을 추정치는 한화시스템 YoY +486.2%, 한국항공우주 137.0%, 한화에어로스페이스 62.7%로 상대적으로 높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에 성공할 경우 잠수함에 탑재되는 전투체계, 훈련체계, 소나체계, 수중 무장체계와 성능개량, 후속 군수지원 수요가 기대되는 한화시스템, LIG D&A가 주목받을 수 있다.



Analyst 채운샘 unsam1@hanafn.com

비우호적 환경, 반등 시 주도주에 편승

건설 Weekly | 2026.6.9



Analyst 김승준 sjunkim@hanafn.com

Analyst 하민호 minhoha@hanafn.com

주간 동향 및 이슈

주간 투자 전략 및 이슈 점검

- 수익률은 건설업이 코스피 대비 6.4%p 하회했다. 지난 주 수급은 기관 매도, 외인이 매수했다. 기관은 원전주(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를 매도, 삼성물산을 매수했으며, 외인은 원전주를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매수했다. 코스피가 하락한 가운데, 건설섹터는 원전주와 재건축주를 중심으로 더 크게 하락했다. 지방선거가 종료된 가운데, 금리 상승, 고환율, 고유가 등의 우호적이지 못한 환경에서 원전 이벤트의 부재, 중동 분쟁 격화가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다.
- 전국 매매수급동향은 97.7으로 한 주 만에 상승했다(+0.20%p).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40주 연속 상승(+0.07%), 전세가는 51주 연속 상승했다(+0.11%). 수도권 매매가는 66주 연속 상승(+0.14%), 전세가는 67주 연속 상승했다(+0.18%). 서울 매매가는 71주 연속 상승(+0.24%), 전세가는 68주 연속 상승(+0.29%)했다. 지방광역시 매매가는 하락(-0.02%), 기타지방은 보합을 기록했다. 전세가는 지방광역시 44주 연속 상승, 기타지방 40주 연속 상승했다(각각 +0.04%, +0.03%). 광역시별 매매가는 울산(+0.08%), 인천(+0.01%)이 상승, 부산 보합, 대전(-0.04%), 대구(-0.03%), 광주(-0.10%)가 하락했다.
-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관련 질의와 답변이 있었다. 부동산 정책 운영 계획에 대한 질문에 부동산 투기 구조 탈피, 공급 늘리기(택지개발, 재건축, 재개발, 다주택 매물 유도 등), 투기수요 억제(보유세, 임대수익률 하향, 상응하는 부담), 민간 부채 관리(부동산 담보대출, 신용대출 감축), 거주용 주택 보호(사치품화는 보유부담) 등으로 답변했다. 전세와 관련해서는 사라져가는 추세, 전세대출이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이라고 답변하며, 공공 공급으로 임대를 싸게 좋은 곳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집중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지방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등 지방에 혜택을 늘릴 계획이다. 세제, 금융, 규제, 공급 등을 조만간 정리하여 한꺼번에 정책 결정할 예정이며, 세제는 7월 세제개편안에서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
- 금리 상승, 고유가, 고환율의 환경에서 이란을 둘러싼 중동의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한 주 사이에 쿠웨이트, 이란, 이스라엘 등에서 미사일 및 드론 공격이 있었으며, 예멘 후티 군은 홍해에서 이스라엘 해상 운항 전면 금지 등 선언이 있었다. 이란과 미국 간 종전과 관련한 간극은 좁혀지지 않은 채 악화되고 있는 국면이다. 이와 관련하여 재건축, 주택주 등의 섹터는 악화될 수 있다.
- 종전의 불확실성, 고유가 장기화 및 자재 가격이슈,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금리 인상 우려가 존재한다. 최근 시장의 분위기는 주도주 쏠림이 나타나고, 실적과 현금의 안정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반도체 쏠림 현상에 같이 대응 가능한 삼성물산, 실적 추정치 상향을 기대할 수 있는 아이에스동서를 6월 TOP PICK으로 추천한다. 종전에 따른 중동 재건(삼성E&A, GS건설)과 이란 개발(DL이앤씨)은 종전결과가 나타나고 매수해도 늦지 않다는 판단이다. 원전주(현대건설, 대우건설)는 3분기에 대응하자는 의견을 제시한다.

ETF 투자유망종목

해외주식분석실



국내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KODEX A반도체 (395160)	2026.02.27	29,560	45,000	5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 양산 본격화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및 한미반도체 등 국내 AI 반도체 밸류체인 핵심 기업에 집중 투자 온디바이스 AI 확산과 AI 서버 수요 폭증으로 인한 메모리 수급 불균형 속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실적 개선 및 가치 재평가 기대
WON 초대형IB &금융지주 (0154F0.KS)	2026.02.24	15,160	12,030	-2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및 밸류업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대형 증권사와 주요 금융지주 등 핵심 금융주에 집중 투자하는 패시브 ETF 초대형 IB의 구조적 성장성과 금융지주의 안정적인 배당 매력을 동시에 추구. 미래에셋증권, 한국금융지주, KB금융, 신한지주 등 국내 금융 섹터를 대표하는 우량 종목들로 구성
에셋플러스 코리아 대장장이액티브 (442090.KS)	2026.02.24	25,365	31,770	2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방 산업의 경쟁 심화 속에서 부품, 장비, 소재 등 후방 산업(소부장) 내 독점적 지위를 가진 대장장이 기업들에 집중 투자하는 액티브 ETF 반도체, 방산, 조선 등 한국의 핵심 수출 산업 밸류체인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강소기업들을 선별 편입. 국내 주요 수출주들의 실적 개선과 맞물려 시장 지수 대비 추가적인 수익 창출 기대
PLUS 글로벌방산 (496770.KS)	2025.03.04	13,000	18,400	4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과 유럽의 주요 방산기업들을 편입하는 종목. 독일 방산업체 라인메탈디펜스,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스웨덴의 사브 등이 포트폴리오에 포함 트럼프 행정부의 NATO 방위비 압박으로 주요국들의 국방비가 증액되는 추세.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구조적 수혜를 누릴 것으로 기대

Global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SMH (글로벌 반도체)	2025.11.24	339.12	569.69	6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형주 비중이 높은 대표 글로벌 반도체 ETF. 매출의 50%가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생산 분야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 엔비디아의 실적과 가이드언스를 통해 AI 산업의 꾸준한 성장 모멘텀 확인. SMH는 NVIDIA와 TSMC가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 Capex 경쟁 지속 가운데 소비전력 AI 시장 확장, 신제품 교체 기반의 견고한 수요 기대 유효
SPHQ (미국 대형 퀄리티 주식)	2026.03.23	75.80	84.95	1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익성(ROE), 이익의 질(미결제영업자산 변동), 재무 건전성(레버리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S&P500 내 최상위 우량주 100개를 선별해 투자 매크로 불확실성 및 실적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 탄탄한 펀더멘털을 보유한 기업에 집중해 지수 대비 견고한 하방 경직성과 장기적인 초과 수익 추구
XLE (미국 에너지)	2026.01.02	45.65	57.67	2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S&P500 에너지 업종 ETF. 에너지 섹터의 대형주 20여개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ExxonMobil과 Chevron의 비중이 40%를 상회하는 구성 트럼프 정부의 중남미 영향력 확장 시도 가운데, 베네수엘라 정권 개입 상황이 미국 대표 원유 관련 기업들의 이익 증가 및 자산 회복 기회로 연결될 가능성. 유가 모멘텀은 제한되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의 개별 요인 주목
MADE (미국 제조업 기업)	2025.10.27	30.66	37.09	2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내 매출비중 조건 반영. 중대형 제조업, 제조업 관련 기업들로 구성된 ETF 관세 구조와 트럼프 정책의 지속성에 초점. 상호관세는 협상 여지가 있는 반면, 품목관세는 협상 가능성이 낮아 장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공급망의 리쇼어링 현상 확대 전망. 정책 수혜 및 내수 익스포저 기반의 수혜 기대

주: 기준가는 편입일 당일의 종가, 전일종가는 한국 시장 3시 30분 기준.

단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증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HD현대중공업 (329180.KS)	6/8	664,000	621,000	-6.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건조 Mix 중 저마진 상선 비중 높아 향후 개선 여력이 경쟁사 대비 많아 • 데이터센터향 엔진 공급 수주를 통해 발전용 엔진 시장으로 중장기 성장동력 확대 전망
NAVER (035420.KS)	6/8	255,500	279,000	9.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기반 광고 효율 개선과 스마트스토어·C2C 고성장이 실적 방어의 핵심 축 • 하반기, AI의 서비스화로 인한 광고/커머스 실적 개선 기대
BNK금융지주 (138930.KS)	6/8	17,240	16,230	-5.8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 금융지주 중 가장 양호한 지역 기반과 이를 바탕으로 한 성장 잠재력 보유 • 비은행 포트폴리오 상대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어 이익 안정성 확보 유리
오리온 (271560.KS)	6/8	132,600	128,000	-3.4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베트남-러시아 매출 큰 폭으로 성장하며 해외 법인 중심의 실적 개선세 뚜렷 • 중국에서 고성장 중인 간식 및 온라인 채널에서의 포복 확대 고무적
심텍 (222800.KQ)	6/8	103,000	100,000	-2.9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모리 기반 단가 인상에 따라 2분기부터 가파른 수익성 개선세 전망 • SOCAMM 관련 PCB에서의 기회가 예상보다 클 전망
엘앤씨바이오 (290650.KQ)	6/8	86,200	83,200	-3.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반기 월 8만개, 하반기 월 15만개까지 리투오 CAPA 확대 예정 • 본 매출 순항과 미국·중국 등 해외 진출 준비 감안 시 성장 여력 대비 추가 매력 부각

단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주간(This Week)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5.32%	+2.97%p	+74.66%	+11.01%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주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0%선 적용

증장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삼성생명 (032830.KS)	6/8	412,500	375,500	-8.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보험 판매 확대와 신계약 CSM 증가로 보험 본업의 이익 체력 개선 삼성전자 배당수익 및 자회사 연결 손익 증가로 투자손익 크게 개선
삼성전기 (009150.KS)	5/26	1,340,000	1,664,000	24.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서버 랙 전력밀도 상승과 800VDC 전력 인프라 도입으로 서버용 MLCC 탑재량 증가 타이트한 수급과 가격 조건 개선이 하반기 실적 레버리지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OCI홀딩스 (010060.KS)	4/20	267,500	263,000	-1.6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페이스X와 다년 공급계약 협의 보도로 우주데이터센터향 신규 수요처 확보 기대감 상승 폴리실리콘 CAPA 증설 계획 구체화/가속화에 따른 기업가치 상승 기대
SK하이닉스 (000660.KS)	4/13	1,027,000	1,911,000	86.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1Q26 Preview 매출액 53조원(YoY +203.0%), 영업이익 37조원(YoY +395.0%) 전망 빅테크 중심의 HBM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대규모 CAPEX가 동반되며 HBM 수혜 전망
삼성전자 (005930.KS)	4/1	167,200	295,500	76.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 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
두산에너빌리티 (034020.KS)	4/1	91,800	85,800	-6.5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 원전 투자 확대와 체코·미국 등 대형 원전 프로젝트 수주 기대 2026년 에너빌리티 부문 가이던스 매출액 7.4조원, 신규 수주 20.3조원 제시
POSCO홀딩스 (005490.KS)	4/1	332,500	359,000	7.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1Q26부터 대수리 영향 해소와 자회사 실적 개선으로 안정적 수익성 회복 전망 수입산 철강 규제·중국 생산 규제 수혜로 철강 부문 스프레드 확대 기대
LG이노텍 (011070.KS)	4/1	293,500	1,095,000	273.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환율 + 롱테일효과 + 기판 수요 호조로 2Q26 호실적 기대감 존재 전장 및 서버용 FCBGA 가동률 상승에 따른 가파른 실적 개선 전망

증장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분기(2Q)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21.94%	-20.08%p	+45.35%	-18.30%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분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0%선 적용

Calendar

글로벌투자분석실

SUN	MON	TUE	WED	THU	FRI	SAT
6.7	6.8	6.9	6.10	6.11	6.12	6.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 1분기 GDP F (1.8, 이전치 2.1%) 유로존 섹터스 투자자기대지수 (-13.4, 이전치 -1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1분기 GDP A (E 3.6%, 이전치 3.6%) 중국 5월 수출 (E 15%, 이전치 14.1%) 중국 5월 수입 (E 26.5%, 이전치 25.3%) 미국 4월 무역수지 (E -56.5b, 이전치 -\$60.3b)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 5월 PPI (E 5.6%, 이전치 4.9%) 중국 5월 PPI (E 3.8%, 이전치 2.8%) 중국 5월 CPI (E 1.3%, 이전치 1.2%) 미국 5월 CPI (E 4.2%, 이전치 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5월 실업률 (E 2.8%, 이전치 2.8%) 유로존 5월 기준금리(주요재용자금리) 결정 (E 2.4%, 이전치 2.15%) 미국 6월 1주차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E 219k, 이전치 225k) 미국 5월 전년대비 PPI (E 6.4%, 이전치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 4월 광공업생산 (E --, 이전치 2.3%) 미국 6월 미시건대 소비자심리지수 P (E --, 이전치 44.8) 	
6.14	6.15	6.16	6.17	6.18	6.19	6.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NAHB주택시장지수 (E 37, 이전치 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5월 수출 물가 지수 (E --, 이전치 7.1%) 한국 5월 수입 물가 지수 (E --, 이전치 -2.3%) 일본 6월 기준금리 결정 (E --, 이전치 0.75%) 중국 5월 광공업생산 (E 4.2%, 이전치 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 5월 수출 (E --, 이전치 14.8%) 일본 5월 수입 (E --, 이전치 9.7%) 유로존 6월 CPI F (E --, 이전치 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6월 기준금리 결정 (E --, 이전치 3.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5월 PPI (E --, 이전치 6.9%) 일본 5월 CPI (E --, 이전치 1.4%) 	

주: 1) 괄호 안은 예상치(E), 전월 순, 한국시간 기준 (*E)는 당사 추정치. 2) 유로권, 북미는 전월대비(PCE 디플레이터는 전년동월대비), 아시아, 신흥국은 전년동월대비 기준, 3) P(속보치), A(잠정치), F(확정치)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